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기관으로 10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홍보실장 권순걸

지난 92년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의 법정검사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출판 홍보, 전산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승강기안전 종합기관이다.

승강기의 법정검사는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완성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 제어방식, 정격용량 및 왕복거리를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96년 7월부터 시작된 기계식주차장 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용검사와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다.

관리원의 설립과 더불어 산업용 승강기를 포함한 모든 승강기가 비로소 선진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

것이며 수직교통 시설에 대한 관리원의 노하우가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면서 관리원은 수직교통 안전 종합기관으로 메카적인 위상을 지니게 됐다.

관리원이 다른 몇몇 검사기관보다 중요한 무엇이고 있다면 그것은 법정검사 뿐 아니라 승강기 안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 일들은 검사에 직접 투자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요구한다.

관리원은 전국의 승강기 제조 보수업자, 관리주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필적하는 투자를 통해 전문 홍보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관리원은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승강기의 이력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20여만대의 이력 원장을 기초로 승강기 안전관리 등급 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승강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이며 따라서 호기별 안전관리등급평가제가 가능한 나라도 손꼽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원은 지금까지 전산장비 투자에 10억을 넘게 사용해 왔으며 매년 투자



액수가 증가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전산인력을 고용해 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승강기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지방에는 승강기가 많지 않은 탓에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사무소가 여럿이다. 아마도 생산성과 이윤의 원리대로였다면 검사기관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의 관리주체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관리원은 전국의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를 교육시키면서 교육원가에 밀도는 소위 '밀지는 장사'에 여념이 없으며 승강기관련 국제규격 제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업체를 대신해 ISO/TC178 간사기관을 자임하여 관련 업무에 많은 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ISO/TC178 서울 총회는 그동안 관리원이 기술표준원과 함께 승강기분야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큰 성과임에 분명하다. 국제표준에 자국의 입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후 승강기 산업발전과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리원은 앞으로도 정부를 대신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 승강기 설치댓수와 증가댓수에서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고장 및 사고 증가는 쉽사리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원에서 집계하고 있는 승강기사고 통계는 관리주체의 정확한 신고가 수행되지 않아 실제 사고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승강기 안전사고시 신고 조항이 기표원 고시로만 되어 있고 신고 불이행시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오히려 정확한 통계는 119구조대에서 나오고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승강기 관련 구조인원은 9,183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0,39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부 소방국의 119구조구급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구조인원은 전체 구조인원의 14.3%나 되며 이는 교통사고와 단순감함사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원과 관리원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방증이다.

